

아, 더 유명해지고 싶다...젊은 작가 7인의 고백

July 17, 2016 | 이향휘 기자

아, 더 유명해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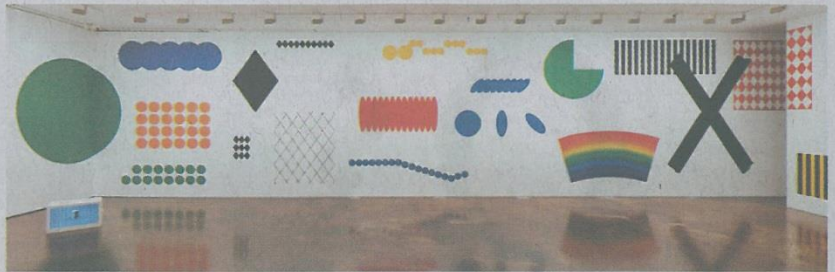
김영나·남화연·오민 등
젊은 작가 7인의 고백
국제갤러리 '유명한 무명'展

요즘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면 "유명인이 되고 싶다"는 답변을 심심찮게 듣는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갖고 있겠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 더 커지고 있다. 스타처럼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하다.

미술계는 어떻게. 작가들은 더욱더 유명에 대한 갈망이 심한 부류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살아서 대스타가 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다. 불멸의 작가는 사후에 재조명되며 탄생한다는 믿음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40대를 넘기 전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빨리 뜨면 뜰수록 좋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젊은 작가들은 '지금 뜨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진다'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혹여 알려진 작가라도 사라지거나 잊힐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시대, 유명세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전시가 국내 최고 화랑 중 하나인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명이 '유명한 무명(wellknown unknown)'이다. 국내의 유명한 작가만이 전시를 열 수 있는 공간에서 아직 유명작가 반열에 오르지 못한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다.

외부 기획자인 김성원 큐레이터(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 시대는 유명과 무명으로 구분된다. 알려지기 위해 초고속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 진정한 유명이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 작가 7명은 김영나, 김희천, 남화연, 베리



김영나 'SET v.4'.



남화연 '욕망의 식물'.

핑즈, 오민, 이윤이, EH로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 참여한 남화연 말고는 모두 순수미술 전공자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오민은 서울대 음대(피아노) 출신으로 예일대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한 뒤 현재 네덜란드에서 영상과 사운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세 편의 영상을 보여주는 데, 하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2번1악장의 구조를 분석해 이를 시각적으로 펼친다. 2011년 작업인 'Daughter'와 'Banana'는 통제를 향한 인간의 열망과 일상의 작은 절차가 하나의 의식이 되는 과정을 워트 있게 풀어내고 있다.

건축 전공자인 김희천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동영상 1600개를 스크린세이버로 만든 작업을, 문학을 전공했지만 시각예술가의 길을 택한

이윤이는 우연히 선물받은 목재 하모늄과 거기에 얽힌 전시 이야기를 정겹게 풀어낸다.

베리핑즈(디자인)는 도시 자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위키피디아처럼 수집해 '도시자연 문화'와 '식물을 둘러싼 이야기'를 펼친다. 조각을 전공한 남화연은 지난해 5월 일본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발견한 기형적인 모양의 식물을 본 뒤 '화이트 마돈나'와 '블랙 마돈나'를 형상화했다. 거대 식물이 페인트를 뒤집어쓴 듯한 모양을 통해 '자연적' 혹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건축사건가 EH는 서울 외곽에 있는 모텔 건물의 선을 장식하는 조명을 포착한 '모텔라인' 시리즈로 눈길을 끈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02) 735-8449 이향휘 기자